

“지역화폐 도움된다”

광주·전남 이용자 41명·자영업자 30명 설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이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설문에 응답한 자영업자 70%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5일~11월26일 광주·전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4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3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답했다.

이용자 10명 중 9명 “경제활성화”...자영업자 70% “긍정”
“할인을 유지” 75.6%...10명 중 7명 “가맹점 많이 없어 불편”

광주·전남 지역민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잘 알고 있고, 사용한 경험이 있는 41명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89.7%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은 41.2%였고, ‘그렇다’ (48.5%), ‘그렇지 않다’ (4.9%), ‘전혀 그렇지 않다’ (1.0%), ‘잘 모르겠다’ (4.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매우 그렇다’ (38.4%), ‘그렇다’ (35.6%) 등 긍정적인 답변이 74.0%에 달했다.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나서 매달 거주지역 내 소비비중의 변화를 묻자, 거주 시군구 내 소비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률은 48.0%에서 51.2%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지역화폐 사용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 할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5.6%였다. ‘할인율을 낮추고, 그 재원으로 포인트 적립 방식을 일부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5%였고, ‘할인율을 없애고, 그 재원으로 포인트 적립 방식을 완전 도입해야 한다’는 4.9%로 나타났다.

응답자 65.9%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해당 상점이 가맹점이 아니어서 불편을 느꼈다고 말했다.

체인형 편의점·농협 하나마트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될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61.0%는 ‘매우 필요하다’, 36.9%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률은 2.4%였다.

매출액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업소만 가맹점

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56.1%), ‘전혀 그렇지 않다’ (12.2%) 등 응답률이 68.3%를 차지했다. 작은 업소만 가맹점으로 받아야한다는 응답률은 31.7%(그렇다 21.9%-매우 그렇다 9.8%)이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으로부터도 후한 평가를 얻었다.

광주·전남 자영업계 응답자 가운데 69.4%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률은 ‘그렇다’가 49.0%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20.4%), ‘잘 모르겠다’ (18.4%), ‘그렇지 않다’ (10.2%), ‘전혀 그렇지 않다’ (2.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76.0%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화폐가 닫힌 지갑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된 뒤 전체 매출액에 얼마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69.9%는 ‘변화없다’고 답했다.

이외 ▲10% 미만 매출 증가 8.8% ▲10-20% 미만 매출 증가 8.8% ▲10-20% 미만 매출 감소 5.1% ▲10% 미만 매출 감소 4.4% ▲20-30% 미만 매출 증가 2.9% 등 답변도 있었다.

광주상생카드 운영을 대행하는 광주은행은 지역화폐 활용을 늘리기 위해 광주상생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

생적금’을 최근 내놓았다.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이나 모바일웹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생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월 납입 한도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정액적립식 기준 기본금리 연 0.7%에 우대금리 최대 연 0.6%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1.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유적립식의 경우 기본금리 연 0.5%, 우대금리 최대 연 0.6%포인트 적용 때 최고 연 1.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광주상생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상생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사용 때, 연 0.2% 포인트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사용 때, 연 0.4%포인트 ▲300만원 이상 사용 때, 연 0.6%포인트를 적용한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카드 10% 특별할인(기존 5%)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했으며, 8월부터는 사전 충전 방식으로 변경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적금’은 지역민의 목돈 마련과 동시에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자급 선순환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옛새만에 하락

코스피가 17일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사흘간 이어온 증가 기준 최고가 경신을 멈췄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3.72포인트(0.42%) 내린 3264.96에 마지머 옛새 만에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567억원, 기관이 686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35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지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조원 이상을 순매수한 건 지난 5월13일(1조4000억원) 이후 1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18억2197만주, 거래대금은 14조3976억원이었다.

반대로 이날 코스닥지수는 거의 2개월만에 10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5.23포인트(0.52%) 오른 1003.72에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증가 기준 1000대를 회복한 건 지난 4월27일(1021.01)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64.96 (-13.72)
↑ 코스닥	1003.72 (+5.23)
↑ 금리(국고채 3년)	1.327 (+0.041)
↑ 환율(USD)	1130.40 (+13.20)



웅이와 함께 더위 피하세요 17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 직원이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방문객에 무료로 제공될 생수와 부채를 선보이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21일부터 143개 모든 영업점에 마련된다. <광주은행 제공>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최선 다하자”

정승일 한전 사장 현장 방문

한국전력은 정승일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배전센터와 신양재 변전소를 찾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현장설비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사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보안 대비태세를 살펴보고 비상시 고장복구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이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비점검으로 정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전력설비 복구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설비 안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한전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 전력 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공사 현장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순찰팀을 운영하는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고는 지속적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예비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가동하는 한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수급비상 ‘관심’ 단계를 먼저 발령한 뒤 재난상황실 직원들은 사업소와 핫라인 운영, 문자 메시지(SMS)·팩스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해 전력수급상황을 방송사에 통지한다. 또 회사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지하며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동시에 고객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시키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사학연금, 국내주식 위탁사 9곳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내주식형 신규 위탁운용사 9개 기관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6일부터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총 51개 기관(성장형 21개, 사회책임투자형 13개, 인덱스형 17개 기관)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뽑힌 운용사는 9개 기관이다.

1차 정량평가를 거쳐 3배수를 추려내고, 비대면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성장형 4개, 사회책임투자형 2개, 인덱스형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성장형은 이스트프링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사회책임투자형에 삼성에프비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인덱스형에 IBK자산운용, 교보약사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이 이름을 올렸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투자전략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